

 인천광역시		보 도 자 료		GLOBAL TOP 10 CITY INCHEON 세계 10대 도시 인천	
		배포일자	2024년 7월 4일(목) 총 2매		
담당 부서	비상대책과	담 당 자	• 담당팀장 배찬수 ☎440-5766 • 담당팀장 김학근 ☎440-4131 • 담당자 박지영 ☎440-5768 • 담당자 신재희 ☎440-5763 • 담당자 이상연 ☎440-4134		
사진(이미지)		☒ 없음 ☐ 있음		참고자료	☒ 없음 ☐ 있음
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 북한 오물풍선 도발 등에 따른 비상대비

- 서해5도 출도 주민 수용·구호 훈련을 통한 구호 절차 숙달 -
- 주민대피시설 및 민방위 경보시설 확충 -

인천시가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에 따라 접경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주민 안전 확보를 위해, 비상대비 태세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시는 최근 북한의 위성항법장치(GPS) 전파 교란 및 오물 풍선 살포 등 지속적인 안보 위협 속에서 ▲경보통제소 증원 근무 ▲유관기관(군·경·소방 등) 비상연락망(핫라인) 가동을 통한 공조 체계 강화 ▲주민 보호를 위한 초기대응반 운영 등 비상상황 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아울러, 실제 훈련을 통한 서해5도 주민의 구호 절차를 숙달하는 한편, 주민 대피시설과 경보시설의 기능 개선으로 주민의 안전 확보 방안을 확충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지난해 실시한 ‘서해5도 주민 출도 훈련’에 이어 올해 8월

에도 ‘서해5도 출도 주민 수용·구호 훈련’을 실시한다. 우발사태시, 대피를 위해 출도한 서해5도 주민을 임시수용시설로 신속하게 이동·수용하고, 구호 절차 및 방안을 숙달하는 유관기관 합동훈련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 상반기에 서해5도 대피시설에 긴급구호물품인 모포, 비상식량을 추가로 비치했으며, 정부지원 주민대피시설 강화 13개소, 웅진 40개소에 폐쇄회로(CC)TV 설치, 일부 취약 대피시설에 바닥난방 설치 등 내부 환경정비를 강화했다.

올해는 주민들의 생존 보장 수단 강화를 위해 추가적으로 국·시비 보조금 15억 원을 지원해 ▲대피시설 바닥난방 설치 ▲노후 위성전화기 교체 ▲노후 경보시설을 교체 함으로써, 민방위 대피 및 경보시설을 확충할 예정이다.

김성훈 시 시민안전본부장은 “최근 북한의 위성항법장치(GPS) 전파 교란에 이어 오물 풍선 살포가 이어지는 등 지속적인 도발에 따라 접경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이 매우 극심해진 상황이다” 며, 대비태세 확립과 주민 안전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